

우리동네 치매 안전망 ‘치매안심약국’ 29개소 추가 지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지난 8일(월) 관내 약국 29개소를 치매안심약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현판식을 진행한다.

‘치매안심약국’은 약국 직원 전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어르신 등 고령자가 방문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치매 극복을 위한 활동을 한다.

주요 활동은 치매 관련 정보제공 및 복약지도, 배회 및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보호,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한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 등이다.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는 2021년 치매안심약국 21개소를 시작으로 총 97개소를 지정해 치매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안심약국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 극복선도단체도 함께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안심가맹점(치매안심약국) 및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연중 모집하며, 신청 및 기타 문의는 달서구 치매안심센터(☎053-667-5771~3)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 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형성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치매가 있어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달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월광수변공원 등 28개소 ‘금주구역’ 지정

달서구보건소,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목적...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지난 1일(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공원 28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 또한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달서구는 2024년 5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

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달서구보건소는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공원 2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 모두 28개소를 ‘금주구역’

으로 지정했다. 달서구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 및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자료제공:달서구청>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주의!

지난해보다 더울거라는 올해, 같은 기간대비 온열질환자가 2배 늘었다고 한다. 온열질환이란 더위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크게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다.

▶일사병(열탈진, Heat exhaustion): 장시간 열에 노출되고 땀과 전해질 손실이 일어나면서 탈진하는 증상이다. 다한(多汗),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더위 먹었다’ 라고 표현하는 증상이다.

▶열사병(Heat stroke): 인체 체온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고온에 노출되었지만 열을 식히지 못해 발생한다. 땀을 내어 체온을 내려야 하는데, 발한(發汗)기능이 소실되어 오히려 땀은 나지 않거나 소량 흘리고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 두통 등의 증상은 물론 의식소실, 열경련과 같은 중추신경계 증상,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동반된다. 50~90%가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열사병의 의심되면 119를 부르고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섭취와 틈틈이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린다면 염분과 미네랄이 포함된 음료를 마셔 전해질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진하게 우린 차, 술, 커피는 삼가야 한다.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에는 창이 넓은 모자, 양산 등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혈액순환,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과 아이들은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활동 중 어지러움, 구역감, 피로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서늘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조금씩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준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 달서구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달성군보건소 ‘심뇌 건강 음료’ 시음회

달성군보건소(군수 최재훈)는 지난 3일(수) 심뇌혈관질환 안심 카페로 지정된 하빈면 ‘로드 135커피’에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심뇌 건강 음료’ 시음회를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 식재료인 땅콩과 파인애플 식초를 활용한 건강음료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달성군보건소에서 지정한 ‘심뇌혈관질환 안심카페’인 ‘로드 135커피’에서 건강음료 시음회를 진행했다. 군은 이번 시음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레시피를 수정하고, 추후에는 판매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대구는 지난 2월 말 대구의료원의 전담 정신건강 전문의 퇴사 및 야간근무 기피와 의사집단행동으로 정신과 의사 재채용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위기관리병동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으나,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소중한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을 빠른 시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대구의료원의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대구가톨릭대학병원 1병상, 수성중동병원 2병상)외 추가로 1병상을 확보해 자살예방 등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